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속살 최고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플론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크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친박과 비박은 공범이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이 국면에서 가장 나쁜 관점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분 짓는 것
 입니다. 이 둘은 한 몸입니다. 국기와 국헌을 문란하게 한 책임
 에 있어 두 사람과 두 사람의 시대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몽갓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제4부라
 불리는 언론까지 대통령 통치 권력 아래에 두려 했던 점, 그렇
 게 해서 그 권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
 니까? 그리고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묵살하고 나아가 휘방 말
 살하려고 공작까지 가동한 점, 그렇게 비판에 앞장섰던 인사나
 세력에게 온갖 불이익을 가해서 '까불면 당한다'는 본보기를 보
 이려 했다는 점, 선거에서는 쳐도 개표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불법을 획책한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경제와 안보는 어땠습니까? 평균 경제성장률, 김대중 5.2, 노
 무현 4.3%인데, 이명박은 2.9%, 박근혜도 지난해까지 집권
 3년 동안에만 2.9%였습니다. 올해까지 합하면 더 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안보 즉 한반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
 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는 2000년 이후 남북군사회담 개최
 건수로 가능할 수 있는데요. 김대중 15회, 노무현 29회, 이명
 박 4회, 박근혜 단 1회였습니다.

이명박근혜 시대에 경제와 안보가 무너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정분배, 경제정의의 가치는, 재벌 특혜와 부정부패의 심화로
 쇠퇴해 경제를 쪼먹었고, 방위산업비리, 미국에 쏠린 국방외교
 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의 정세를 더욱 불확
 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로 보수정치세력이 둘로 쪼개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 둘
 은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두루두루 특혜를 입은 자들
 입니다. 연좌제 운운할지 모르나 명백한 공동정범입니다. 유권
 자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녕 사랑한다면, 이들에게
 희망을 보고 싶다고 판단한다면 이들에게서 정권과 기득권을 회
 수해야 합니다. 못하면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든 처절한 교훈을
 심어줍니다. 반성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알뜰한 정치공
 학을 가동해 또 권력을 손에 넣는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국민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악귀의 행태를 이어갈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탈당 세력들, 새누리당과 연대하는 세력
 들 이들 모두는 촛불혁명이 타도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앞잡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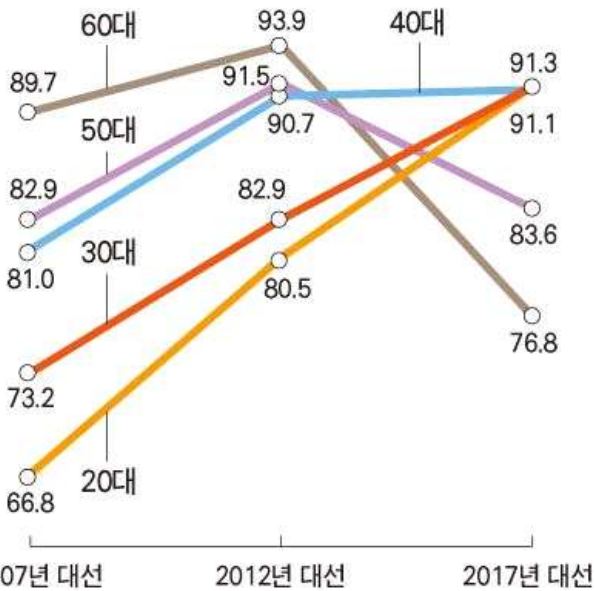
■ 12월 21일(수) 1부 | 수상한 서울교육청...애 육영재단 김쌀까

- [오프닝] 정녕 새누리당 사랑한다면 야당시켜야 할 때
-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5060세대 대선 관심도 확 떨어지고 2030세대 확 올라
- 유승민·김무성 긴급 양자회담 "탈당 결의...다음 주에"
- 최순실 정유라, 강이지 배변대 비용까지 삼성에 청구
- 서울교육청 이종자대·박근령 댄 탈탈 털며 흔들더니
- 중인 빼들리고 위증 입맞추고...수사 방해 작렬 박근혜
- [뉴스들기능력평가] 고은 '만인보'에 등장한 고영태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터키주재 러시아 대사 피살에 독일 트럭 테러까지
- 탈북관리 태영호 동선 공개하는 위험천만한 국정원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국회 출석 황교안발 의전 논란의 경제적 의미는?
- 차츰한 경제지표들, 더 큰 문제는 비전 없다는 점
- [공화국 논평] 어리버리 정동춘에 대한 강한 중대조치

흔돈의 19대 대선

한국일보 내년 대선은 2040세대가 좌우한다

세대별 선거관심도 (단위 : %)



자료: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패널조사(2007.8),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2012.6), 한국일보·한국리서치 탄핵이후 긴급조사(2016.12.9~10)

한국일보가 내년 대선 관심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대와 60대의 관심도는 70~80%대에 그친 반면 20대에서 40대의 관심도는 91%에 달했다. 지난 대선 때는 정반대였다. 여권에 확실한 주자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유권자는 40대 이하가 50대·60대보다 500만명이나 많다. 내년엔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처음으로 40대 이하가 50대·60대의 투표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유승민·김무성 회동 “탈당 결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다음주에 집단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무성 의원과 만나 탈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탈당 의원은 2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 제4당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써 원내 제1당은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된다. 새누리당에서 30명까지 이탈한다면 새누리당은 100석 미만 소수당이 된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헌도 가능해질까?

최순실에 매달린 삼성

중앙일보 삼성, 崔와 ‘백지수표 계약’

검찰 수사 결과 삼성은 최순실의 독일회사 ‘코어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코어스포츠가 예상 지출액을 적어 내면 삼성이 이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었다. 또한 청구액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은 사실상 ‘백지수표’와 같은 계약서 구조였다. 얼마 쓰든 마음껏 쓰시라, 삼성이 최순실에게 이랬다는 것.

중앙일보 崔, 삼성 돈으로 ‘개 배변판’ 사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 최순실과 정유라는 독일에 체류하면서 생필품은 물론 커피·아이스크림까지 삼성에서 받은 돈으로 구입했다. 특검팀이 최순실 모녀의 생활비 영수증을 확보한 것인데 구입 목록에는 강아지 배변판과 육아용품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런 식으로 최순실 모녀가 삼성에 청구한 돈은 약 10억 원이었고 승마 훈련 명목으로 받은 돈까지 포함하면 약 80억 원에 이른다.

한겨레 특검 “이재용, 최순실 지원 지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통령 박근혜와 독대한 지난해 7월에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와 독대를 하고 몇일 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출국해 최순실과 정유라를 만난 것이다. 또한 특검은 박상진 사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내역 등 각종 자료에서 최순실 모녀 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하고 보고받은 흔적을 발견했다. 이재용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올해 2월에 알았다고 말해서 위증 의혹이 일고 있다.

어깨가 무거운 특검

朝鮮日報 정두언에 ‘최태민’ 물은 특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정두언 전 의원을 장시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전 의원은 2007년 이명박 캠프 쪽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검증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얼마전에는 아동이 나와야겠다고 말했었지? 두 사람은 ‘최태민’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고 한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 박근혜의 뇌물 혐의와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jtbc 기약 없는 세월호 인양,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이 점점 늦어져 내년 봄에나 마무리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에 인양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변경됐기 때문인데, 지난 7월 인양 장비가 시운전을 하다가 망가진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인양에 필요한 시물레이션도 하지 않았으며 '인양 장비들의 설계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해양수산부는 기술검토 보고서나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jtbc 보도. 그러니까 인양 제 때에 못하게 하려고 해양수산부가 천인공노할 꾀수를 썼다는 의혹도 가능하다.

경향신문 박근혜, 특검 수사 협조 안 할 듯

청와대가 윤전주·이영선 행정관의 '연가'를 허용함으로써, 청문회 불출석을 유도했다. 사실상 핵심 증인을 빼돌린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이만희 의원과 최순실의 측근들이 청문회 질의응답에서 입을 맞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그런 만큼 대통령 박근혜 측의 특검 협조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는 묵비권, 자료제출 거부 등 피의자로서 권한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인들이 주로 이 짓을 한다.

꼼꼼한 박근혜

한겨레 최순실 “다른 변호사 알아봐 달라”

최순실이 이경재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검찰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의 변호를 함께 맡았던 다른 변호사들도 '이경재 변호사가 변론보다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더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아닌 박근혜를 위한 변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1989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공안3과장 직무대리였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이 회장을 맡았던 '고령향우회'의 부회장을 지냈다. 한겨레 보도. 이 보도를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이 운명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따라서 둘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노컷뉴스 조희연, '육영재단' 감사 해야

육영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관할 교육청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육영재단의 이사장이었던 80년대에도 '최태민-최순실'의 운영 개입 및 전횡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동생인 박근령 씨가 이사장이 된 90년부터는 교육청의 특별 감사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육영직원들은 박근령 씨의 이사장직을 박탈하기 위해 교육청이 '기획 감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이 박근령 씨를 이사장직에서 취소 처분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식장 임대사업'을 승인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사실상 지배하는 현재도 육영재단은 예식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일보 기약 없는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논란을 야기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 도무지 판결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재판장이 1년 5개월째 심리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재판부와 검찰의 극심한 마찰이 되풀이되면서 공판을 이끌던 검사 3명이나 이탈하고 한명만 남은 상태다. 게다가 내년 2월로 다가온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높아 재판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국일보 보도. 이 판사님들도 뒷조사 당하셨나?

첩첩산중

朝鮮日報 평균 부채 1억, 가계에 돈 없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빚이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작년 기준 약 27%에 달했다. 무슨 뜻이냐면 벌어서 손에 쥘 돈이 100만 원이라면 27만 원 가량을 빚 갚는데 쓴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면 톱이다.

김·용·민·브·리·핑·이·완·배·기·자·의·경·제·의·속·살
12월 29일 13시 전주 갈보리교회 19시 광주YMCA
사전예약 <https://goo.gl/Y1DLmd>

중·일·미 연례행사 AI, 막을 방법 없나

연례행사처럼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양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방식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일본은 밀집 사육을 최소화한 결과 옮겨올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57만여 마리에 불과하다. 한편 중국은 밀집 사육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규모 살 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AI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방식처럼 친환경 사육을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중국처럼 백신을 접종하자니 AI 잡기가 쉽지 않을 듯 보이고.

오늘의 칼럼

한겨레 “최순실과 어린이재활병원”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의 “최순실과 어린이재활병원”이다.

“푸르메 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어린이재활병원이다. 병원 터는 마포구청이 무상으로 제공했다. 430억 원의 건립비는 1만 명의 후원자와 500여 개 기업·단체, 정부와 서울시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 그렇게 지상 7층, 91개 병상을 갖춘 병원이 올해 4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건립만큼이나 운영도 어렵다. 어린이 재활은 모든 분야 치료가 일대일로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 로봇 보행기 등 대당 수억원씩 하는 특수장비 운영비용도 만만찮다.

이 병원의 정식 명칭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다. 게임기업 넥슨이 건립비용 200억 원을 낸 걸 기념해 이렇게 이름 지었다. 김정주 넥슨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후속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며칠 전 올해 운영비로 3억3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병원 운영엔 숨통을 텃다. 백경학 이사는 주요 대기업을 찾아다녔다. “사회공헌사업 예산을 다 써서...”라는 한결같은 답변을 들었다.

최순실 씨 사건이 터지고서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원 씩 내느라 다른 분야엔 지원할 돈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임질 일이다. 어릴 때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민간병원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최순실씨 단골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체에 정부는 15억 원의 지원금을 줬다. 이들 사업은 ‘근거와 전례’가 있었기에 정부 예산을 투입했던 것일까. 꼭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진 이들에겐 인색하고,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정부는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박근혜 정권,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을 여기서 본다.”

